

2023

한국의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서



2023 한국의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서



목차

I. 교육 개요

1. 교육 필요성과 목표	06
2. 교육 대상과 강사진	06
3. 교재	08

II. 교육 일정

1. 교육 일시와 장소	12
2. 교육 사진	13

III. 교육 내용과 자료

1. 유산영향평가의 이해와 사례	24
2.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31
3.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38
4.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52

IV. 교육 평가와 과제

1. 교육 평가	80
2. 교육 과제	91

I. 교육 개요



I. 교육 개요

1. 교육 필요성과 목표

국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서 유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의 서원을 관리하는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실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담당 실무자가 다양한 관점으로 세계유산을 바라보며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유산영향평가의 개념, 과정 및 방법과 통도사의 사례
-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의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
- 성리학의 발생과 발전 및 특징을 통해 본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 세계자연유산 등재 개요 및 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활용프로그램 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설명

2. 교육 대상과 강사진

1) 교육의 대상

본 교육의 주 대상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구성하는 14개 지자체 관계자로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1명, 경상북도 1명, 달성군 2명, 정읍시 1명, 영주시 3명, 안동시 1명, 경주시 2명, 함양군 1명이 참석하였다.

연번	서원명	성명	성별	비고
1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김덕철	남	
2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권민정	여	
3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문화예술과	김제근	남	
4		차육진	남	
5	정읍시청 동학문화재과	박지현	여	
6	영주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김진덕	남	
7		강병수	남	
8		금창헌	남	
9	안동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조윤수	남	
10	경주시청 문화재과	조지희	여	
11		설수경	여	
12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김유리	여	
13-18	서원세계유산센터	기획조정실장 등 6명		

[참가자 명단]

2) 강사진

본 교육의 강사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유산영향평가의 이해와 사례
- 박성진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장)
 -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 서원 방문객 관리연구에 따른 관광 성향 분석 및 해설 방향성 제언
- 허진이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 주무관)
 -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형식과 절차
- 김상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 주무관)
 - 제주세계자연유산 생성 및 특징 현장 강의 및 거문오름 답사 진행

3. 교재

교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작하여 강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A4 68쪽 분량)

- I. 2023년 한국의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요
- II. 유산영향평가의 이해와 사례
- III.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 IV.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 V.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교재 표지]

II. 교육 일정



II. 교육 일정

1. 교육 일시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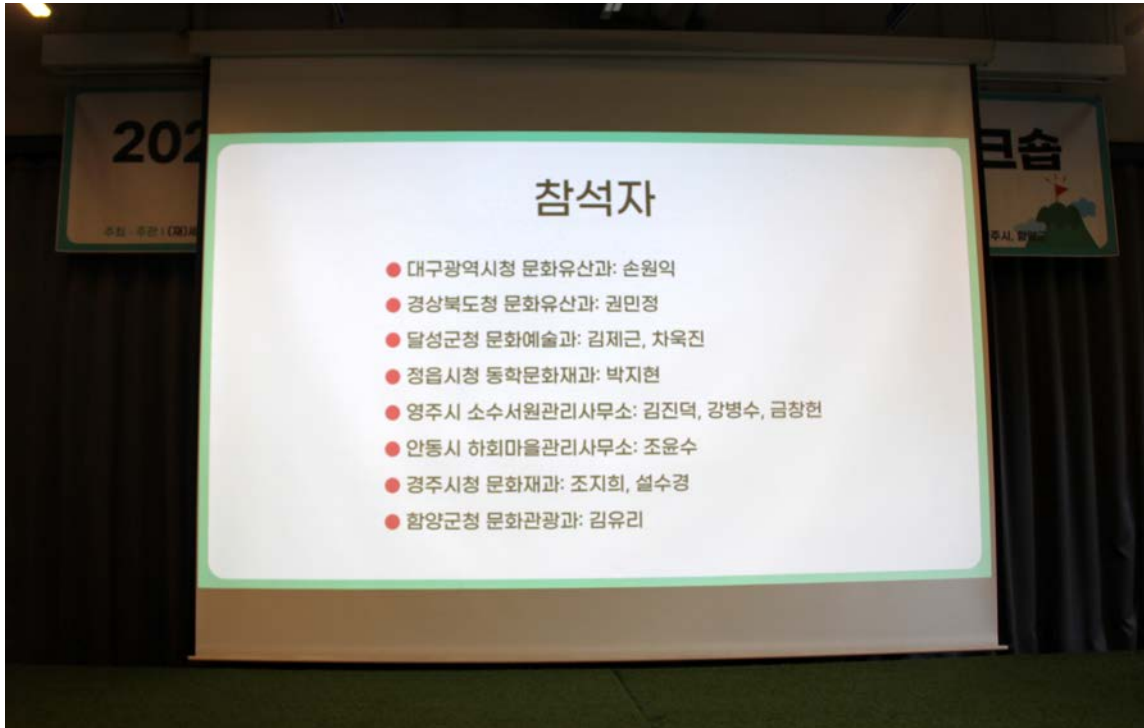
본 교육은 2023년 10월 19일(목)~20일(금) 1박 2일로 실내교육은 3시간 30분, 현장답사는 4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간		내용	강사
1일차	11:00-11:40	등록	
	11:40-12:50	이동 (공항→호텔)	
	12:50-14:00	중식	
	14:00-14:30	개회사 및 참가자 소개	
	14:30-15:20	[교육 및 질의응답] 유산영향평가 이해 및 평가사례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5:20-15:30	휴식	
	15:30-16:20	[교육 및 질의응답] 조선의 성리학과 한국의 서원	박성진 (서원 세계유산센터 센터장)
	16:20-16:30	휴식	
	16:30-17:20	[교육 및 질의응답]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관)
	17:30-19:00	석식	
2일차	6:30-8:00	[답사] 성산일출봉	
	8:30-9:30	조식	
	9:30-10:30	[교육 및 질의응답]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허진이 (세계유산본부 주무관)
	10:30-11:00	이동 (숙소 → 거문오름)	
	11:00-12:30	[현장강의 및 답사] 거문오름 정상코스 답사	김상수 (세계유산본부 주무관)
	13:00-14:00	중식	
	14:00-14:20	이동 (거문오름 → 만장굴)	
	14:30-15:30	[답사] 만장굴	
	15:30-16:30	이동 (만장굴 → 공항)	
	16:30	교육 종료	

[교육 일정]

2. 교육 사진

교육 진행 장면을 사진으로 수록하였다.











II. 교육 일정









III.

교육 내용과 자료



III. 교육 내용과 자료

교육의 내용은 유산영향평가의 이해와 사례,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에 대한 이해,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로 구성되었으며, 강사진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진행되었다. 강의에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유산영향평가의 이해와 사례

: 한필원(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유산영향평가의 이해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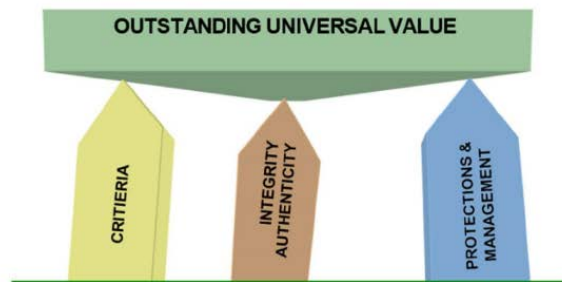
한필원

2023. 10. 19.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

OUV, 속성에 대한 영향

OUV를 이루는 핵심 구성요소(pillar)는 등재기준/가치, 완전성·진정성, 보호·관리다. 따라서 유산영향평가는 이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사업의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여야 한다.



1/13

Presented by ATA

2. 유산영향평가의 대상 범위



World Heritage property

WH buffer zone

Wider setting

세계유산구역

완충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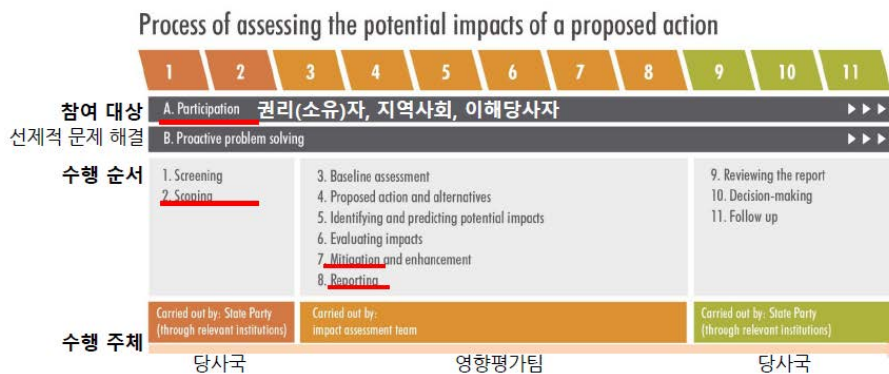
주변 환경

2/13

Presented by 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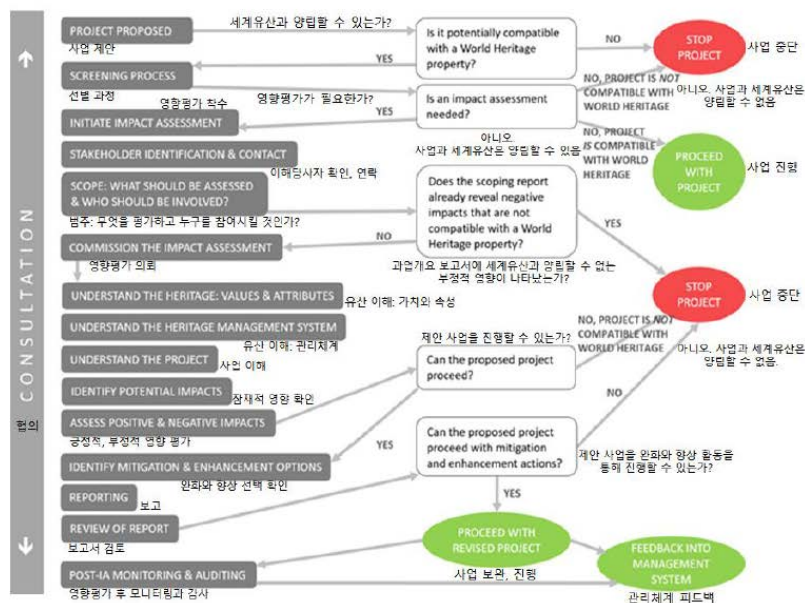
3. 유산영향평가의 과정

1. 선별 2. 사업개요연구 3. 기준 평가 4. 제안사업과 대안 분석 5. 잠재적 영향 확인과 예측
6. 영향 평가 7. 완화와 향상 8. 보고 9. 보고서 검토 10. 의사결정 11. 후속 조치



3/13

Presented by 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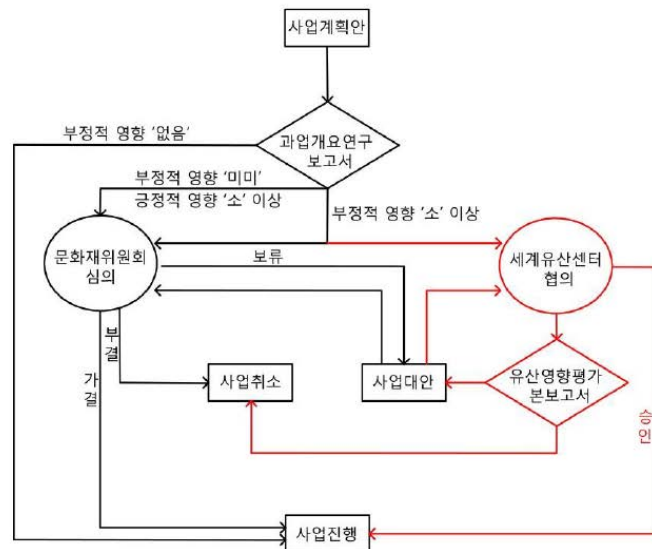


유산영향평가의 의사결정 과정

4/13

Presented by ATA

4. 유산영향평가 과업개요 연구(Scoping Study)



과업개요 보고서의 활용과 사업의 추진 흐름도

5/13

Presented by **ATA**

5. 유산영향평가의 방법

1단계(Tool 1): 유산 가치와 속성 파악

2단계 (Tool 2): 잠재적 영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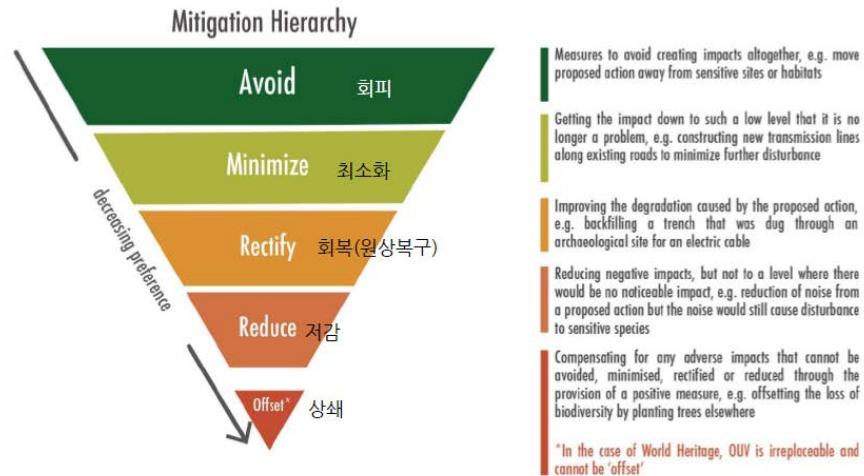
3단계 (Tool 3): 잠재적 영향 평가

[illegible]

6/13

Presented by **ATA**

6. 유산영향평가의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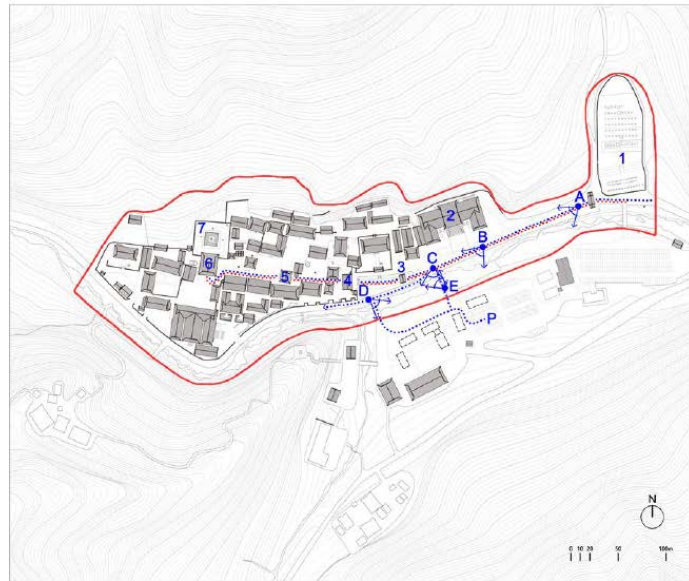
7/13

7. 유산영향평가(과업개요 연구)의 사례: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예비평가

표 5. 세계유산 통도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통도사는 7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불교 출가자와 신자의 수행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져 불교 승원문화를 예증하는 종합적인 승원이다. 통도사는 불교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된 공간구성의 진정성을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승가공동체의 종교공동체의 활동이 이어져 온 성역으로서 특출한 증거이다.			
가치 서술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개방성을 사찰 내 공간구성에 반영하며, 신앙·수행·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종합승원이다. 7세기에 중국으로부터 대승불교의 다양한 종파를 수용해 산지에 창건된 사찰로 불교를 억압한 조선시대를 거쳐 신앙·수행·생활을 유지하는 종합승원의 성격을 유지하며 존속했다. 유·무형의 문화적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불교 유산으로, 불교 신앙에 기초한 예불과 의례, 강론 등 불교 수행 뿐 아니라 토지신, 창건스님을 기리는 신앙 등을 포함한 융합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창건 이후 주변의 자연 지세와 계류 등을 경계로 삼아 지형적 특성을 수용하며 대지를 조성하고 공간을 구성·확장하였다.			
속성	입지	공간구성	종교공동체의 종교활동과 생활	무형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자연 - 산지지형 - 양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축 신앙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불전과 전각) - 외부공간 - 석조물 수행 공간: 선방, 강원 생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사채 - 부속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앙공동체의 자립성 - 경작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례: 개산대제(음 9월9일), 보살계

Presented by ATA



9/13

Presented by **ATA**



현황

10/13

Presented by **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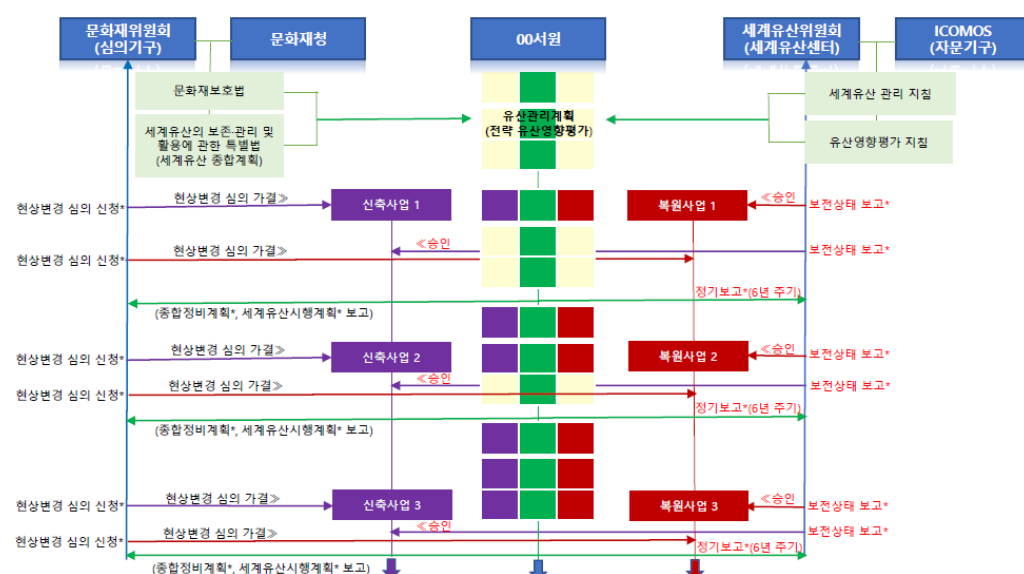


사업 후 시물레이션

11/13

Presented by ATA

8. 유산영향평가, 유산관리계획, 종합정비계획의 관계



13/13

2.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 박성진((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장)



중국의 서원 악록서원



소개

- 유교는 학문인가 종교인가?
 - 학문적 성격
 - 종교 체계적 성격(유교의 정의)
 - 종교적 성격
- 유교의 종사자들은 누구인가?
 - 유자, 유학자, 유림, 유생
 - 사림
 - 선비

일본의 사숙 데키주쿠



유교의 학교 제향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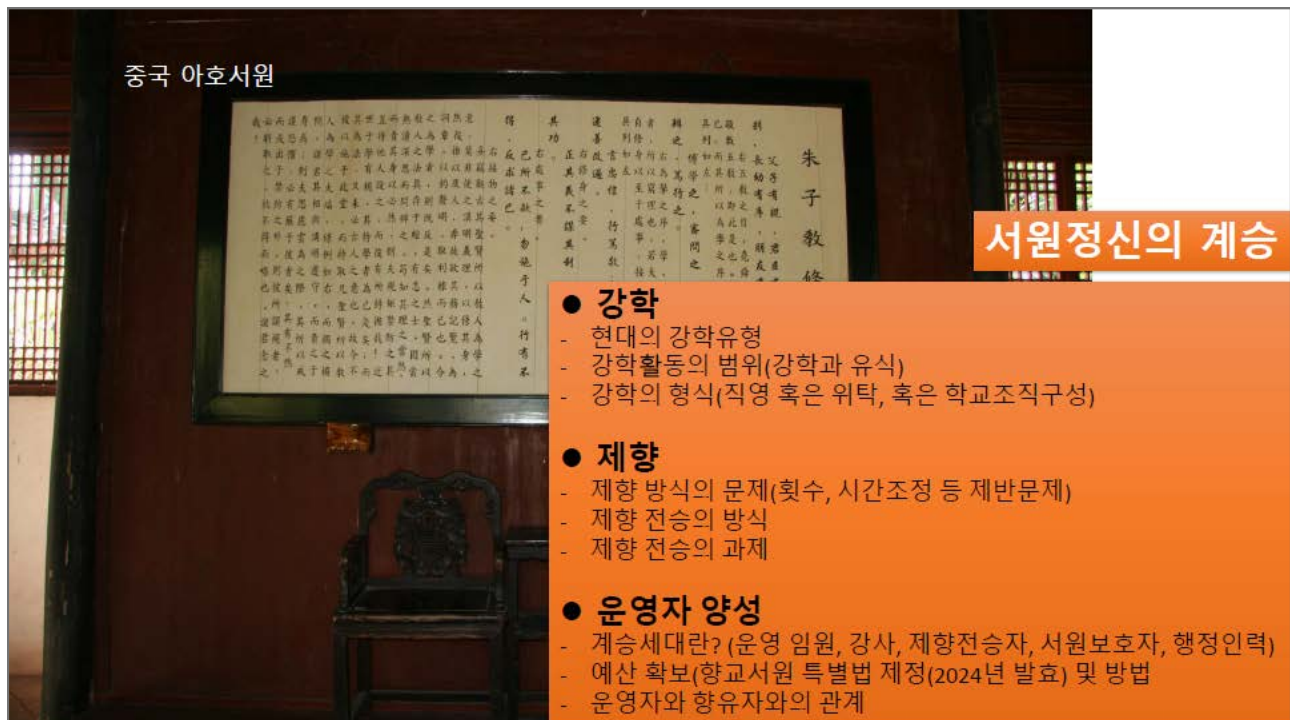
동시(童試) · 향시(鄉試) · 회시(會試) · 전시(殿試)
국자감
공묘(부자묘)
부 · 주 · 현학(府州縣學)-공원(貢院)
사립 서원
일본 聖堂, 베트남 국자감, 말레이 인도네시아
성균관, 사학
향교
사립 서원
서당(가숙)
제례의 기원 종묘(천자,제후,대부,사), 문묘제 향교 대성전, 서원 사당
精舍(학문), 祠宇(조상)

중국의 서원 백록동서원 주자사



서원 제도의 정착

- 중국의 경우
 - 공자
 - 제자백가-집단지도체제
 - 송명리학의 발생
 - 주자
- 조선의 경우
 - 성리서적의 전파
 - 사림의 등장
 - 서원창건과 서원운동
 - 16세기~17세기 서원
 - 서원의 남설
 - 서원의 피폐





중국 백록동 서원 강학당

중국에서의 성리학과 변천

- **성리학의 태동** : 불교나 도교 등에서 여러 형이상학적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유학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유학을 불교와 도교에 비해 우위를 갖는 학문으로 만들었다. 이는 **송나라** 시기 **주돈이** · 장재 · 소옹 · 정호 · 정이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유학자들이 구체화하였고 이를 **주희**가 집대성하여 이후 성리학이라 부름
- 양명학 : 심즉리, 심외무물, 인간의 의지 강조
- 고증학 : 청나라 실사구시 중시
- 5.4운동 : 유교타도운동
- 중국 공산당 : 비림비공 개혁
개방 : 위대한 중화 교육자



주희(朱熹, 1130-1200)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8

한반도 성리학의 도입과 발전

- 성리학(性理學)이 안향(安珦: 1243~1306)에 의해 도입
- 불교의 폐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개혁적 열망은, 성리학을 도입하여 불교적 세계관을 몰아내는 지식인들의 거대 프로젝트로 결론이 내려지고 조선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기초를 놓음.
-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들의 논의는 구 고려 왕조 시대의 종교적 생활 방식을 타파하는데 있었고 성리학이 윤리적, 경제적 생활 이념으로 완전히 체화된 것은 퇴계와 율곡이 등장한 16세기 후반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9

최치원(통일신라)
(857년~)

안향-이색-정도전
(1243~1306)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정여창

(1405~1504)

김광필-조광조-이이-김장생-김집-송준길

(1454~1504)

(1548~1631)

김안국-김인후

(1510~1560)

손중돈-이안직

(1491~1553)

-이항-류성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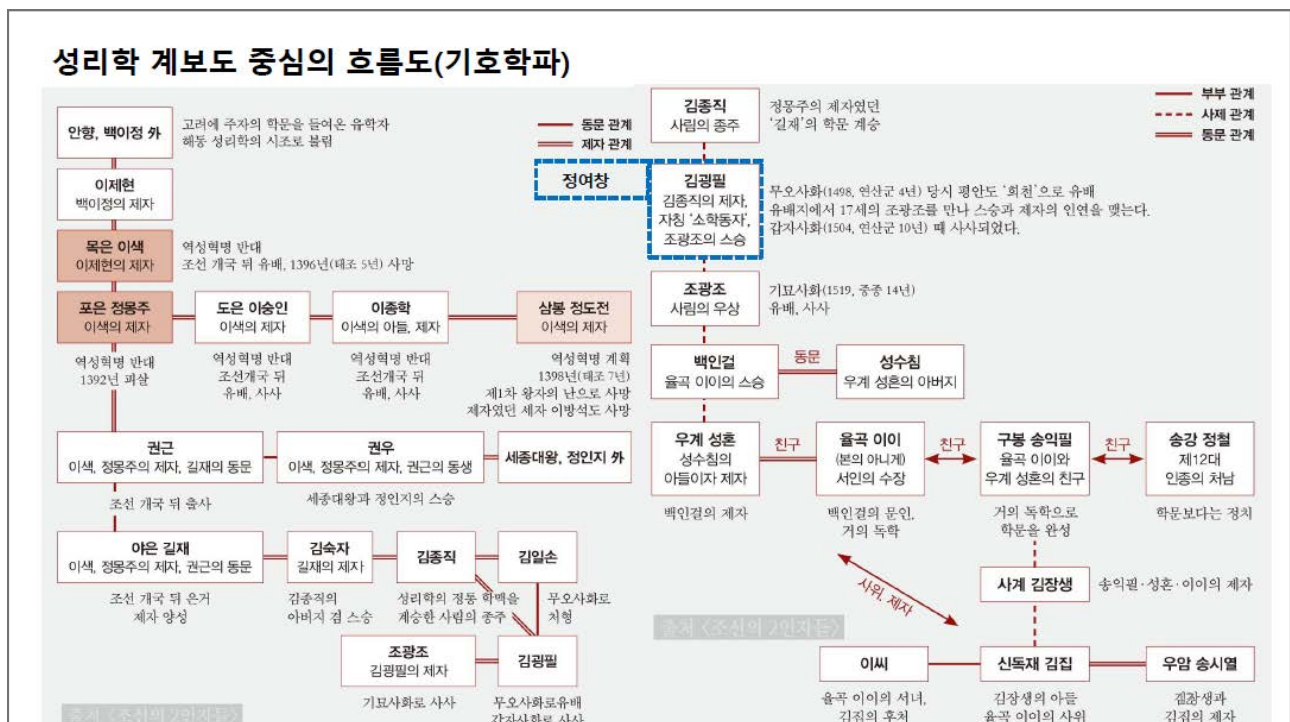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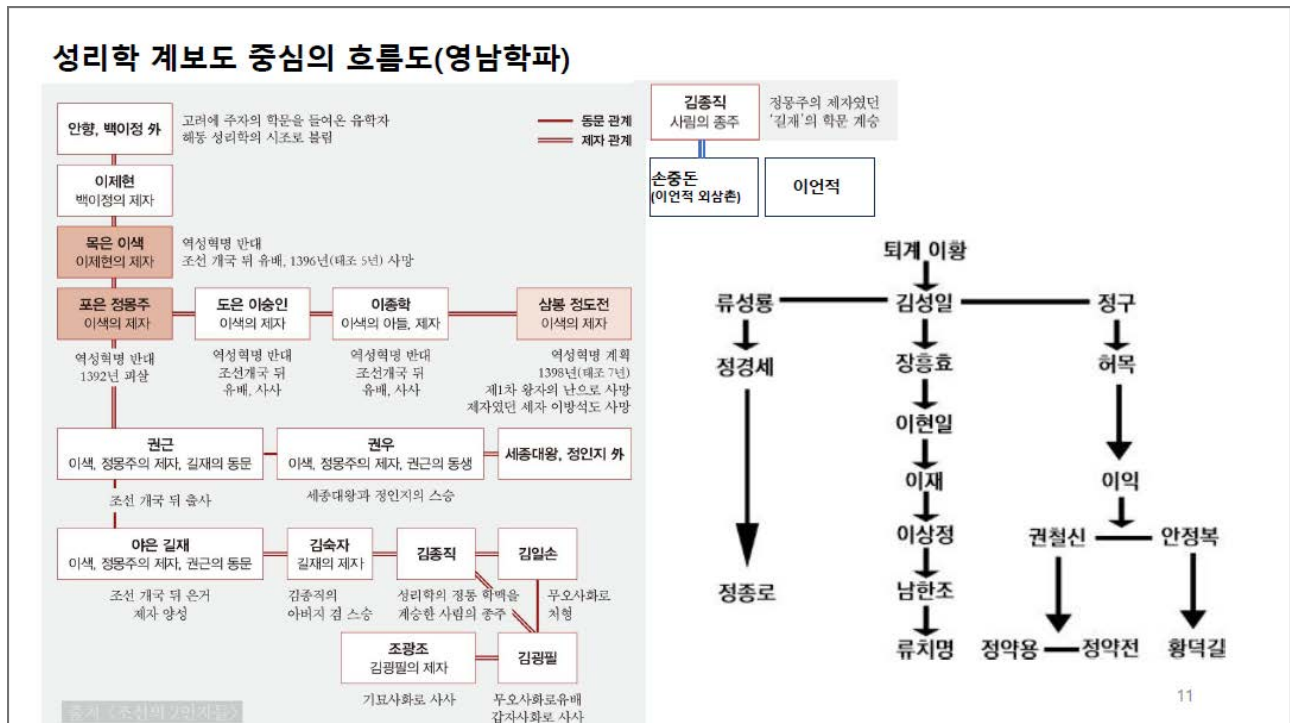
(1502~1571) (1542~1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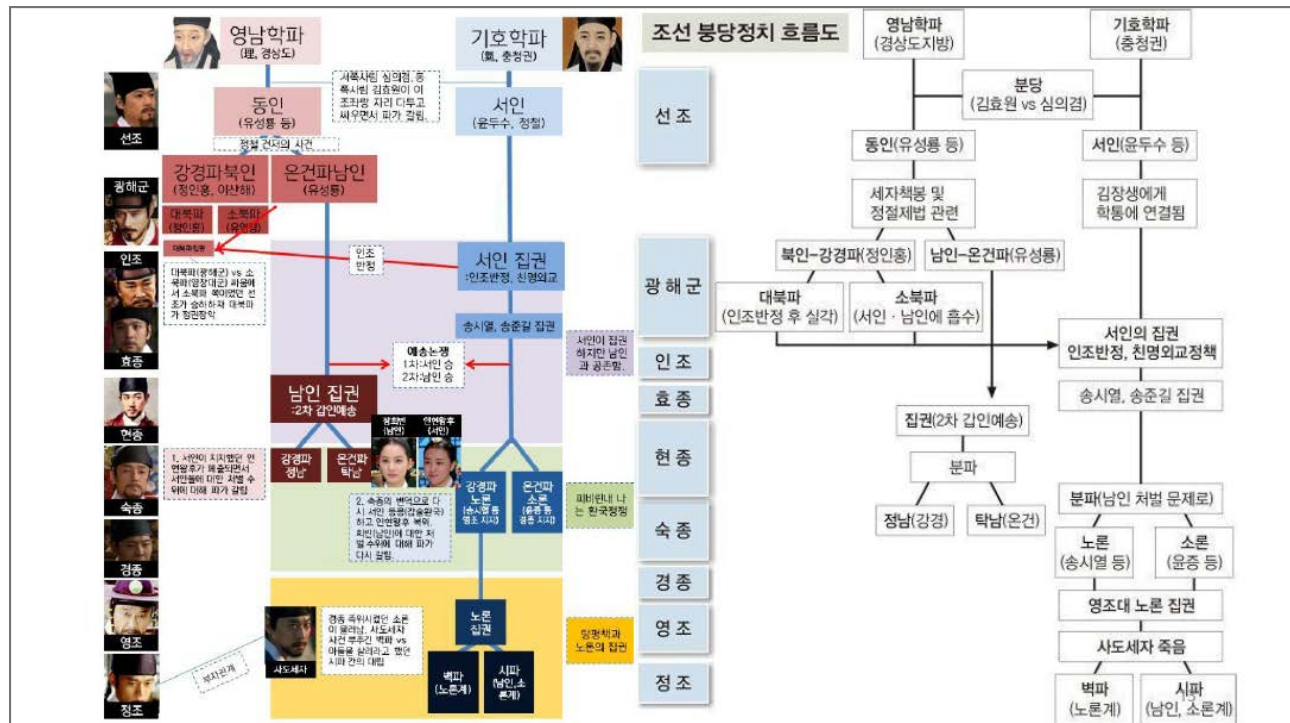
배향자 중심의 인물 계보 도와 서원 성격 분류

- 존현서원3개 — 병산, 필암, 돈암
- 사림서원3개 — 옥산, 남계, 도동
- 강학서원3개 — 소수, 도산, 무성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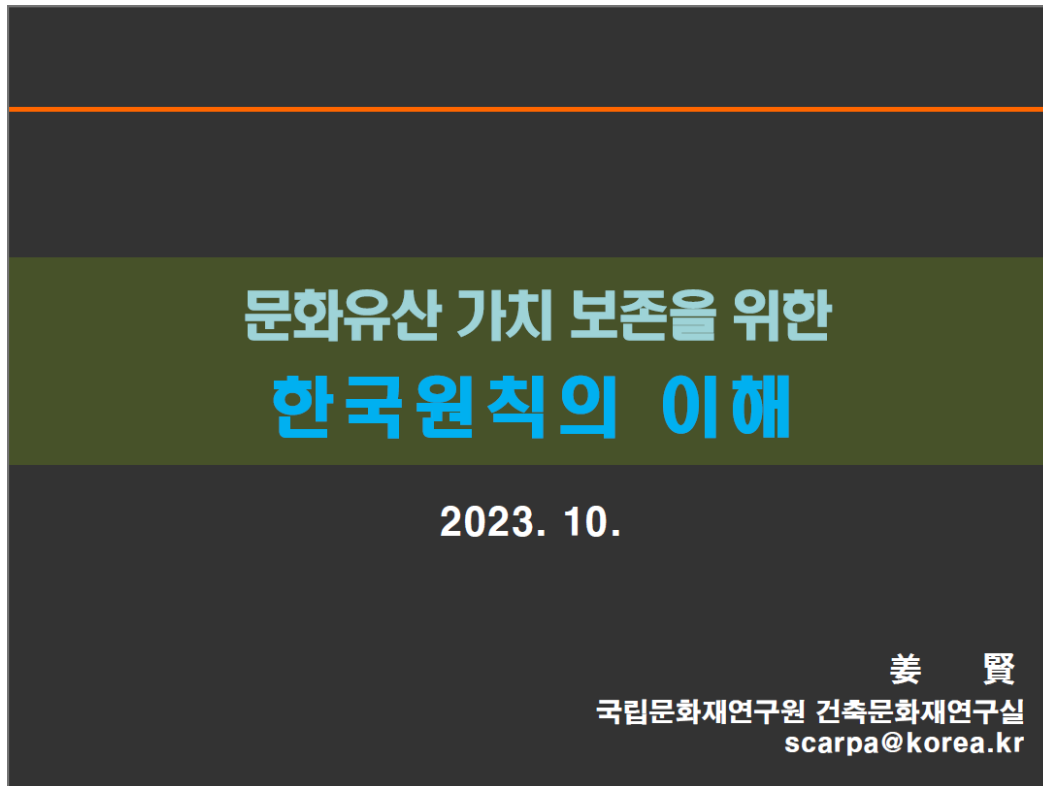
10





3.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 강현(국립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1. 보존원칙

한국의 문화재 보존 역사 개관

03 29

● 일제강점기

- 1902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 건축조사
- 1909~12년 건축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
- 1913년부터 석굴암, 평양 보통문을 시작으로 한 일본인에 의한 수리
- 일본 수리 방법의 직접적 적용,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문제

● 해방 이후

- 1945~1960년 해방 이후의 모색기, 국립박물관이 중요한 역할 수행
- 1961년 문화재관리국 신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 1960년대 한국인 전문가, 기술자의 배출 확대

● 1990년대의 패러다임 변화

- 경제적 성장을 통한 일반 국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인식
 - 88년 서울올림픽, 문화유산 답사, 박물관대학
- 지방자치제의 확산(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 세계유산의 등재
 -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이 등재]
- 문화재에 대한 인식 확대(근대문화재, 역사문화경관 보존, 고도 보존 등)
- 1999년 문화재청 신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동아시아

04 29

※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 중국은 1985년 가입 후 1987년 막고굴, 만리장성 등 최초 등재, 현재 40건
- 한국은 1988년 가입 후 1995년 석굴암 석굴 등의 등재 시작
- 일본은 1992년 가입 후 1993년 호류지, 히메지조 등 최초 등재, 현재 14건

나라문서 (Nara Document, 1994)

-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개념의 도입
 - 문화유산의 가치는 해당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
-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장, 재료, 기술, 환경)
 - 일본의 건축문화재 수리(修理) 방법상의 문제 : 재료의 보존
 - 일본의 고대건축 복원(復元) 문제 : Original 과 Copy
 - 서구에서 발달한 물질 보존 위주에 대한 개념의 확장 문제
-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진정성 개념의 확대

일본의 세계적 문화재 보존 경향에 대한 대응

- 문화적 다양성에 의한 유산의 가치 평가 문제 강조
 - 무형적 가치 : 일본 신사의 '式年造替'
 - 목조건축 양식의 보편성 : '木割', '規矩術'에 대한 인식의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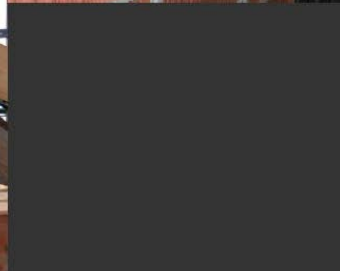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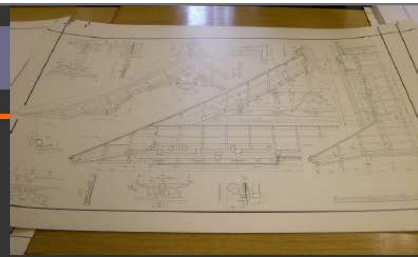
FIG. 7. Ise Shrine Inner Compound. Aerial photo showing new and old buildings during the reconstruction transition period; the older compound will be dismantled after the transition ceremony (photo Jingu Shicho)



FIG. 6. Shin-Yakushiji Hondo. Interior after conservation

수리공사의 변화 추이

- 재료의 보존
 - 재료 교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
 - 보강(consolidation)의 적극적 활용
- 정보의 보존
 - 수리공사보고서에 의한 기록 보존의 강조
(2007년 현재 1,900권 이상 발간)



복원의 논리
07 29

- 동서양 유적의 현상 차이
- ‘복원(復原)’과 ‘복원(復元)’
- ★ 2차 대전 이후의 재건 문제 (드레스덴 선언문, 1982)

‘파괴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록’



Roman Forum, Rome



문화재 보존원칙
08 29

- 문화재보호법
 -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9.7.1.] [법률 제5719호, 1999.1.29., 일부개정]

- 일반원칙으로 공식적으로 입법화 된 것은 1999년 1월 29일 개정시
- ‘예술적’ 원형
 - 완결된 예술작품으로 존재하는 완전한 상태
 - ‘Integrity’ : 완전성
 - 진실성, (나뉘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함
 - ‘이상적 예술작품으로서의 원형’과 ‘창작자의 창작의도가 반영된 원형’
- ‘역사적’ 원형
 - ‘역사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역사적 진품’의 보존
 - ‘역사적 층위’의 보존

문화재의 가치와 원형

09 29

● 문화재보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 ‘공시성(관계들의 체계)’과 ‘통시성(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 근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은 르네상스 이후 ‘예술(Art)’, ‘역사(History)’에 대한 개념의 정립에 기반
- 예술적 가치 : ‘예술작품(Masterpiece)’으로서의 ‘완전성(Integrity)’ 보존
- 역사적 가치 : ‘역사적 증거물(Historical Evidence)’로서의 ‘진품(Genuine)’ 보존
- ‘예술적 가치’를 우위에 두느냐, ‘역사적 가치’를 우위에 두느냐의 문제

※ “역사의 증징, 유서의 특수 또는 제작의 우수” (<고사사보존법>, 1897)

● 현대 보존이론의 추세 : ‘역사적 가치’ > ‘예술적 가치’

2. 한국에서의 기존 현황

한국의 수리공사

11 29

● 일제강점기부터 적용되어온 수리공사의 2가지 유형

- 해체수리(Dismantling and Reassembly for Repair) 시의 유형 구분
- 당초양식(當初樣式) : 부분적인 복원을 수반
- 원형유지(原形維持) : 교체, 보강의 방법 적용

※ 이 2가지 수리 유형은 일본의 수리공사 전개과정에서 정립된 것으로 특히 당초양식의 경우 ‘현상변경’과 관계

당초 양식 : 양식적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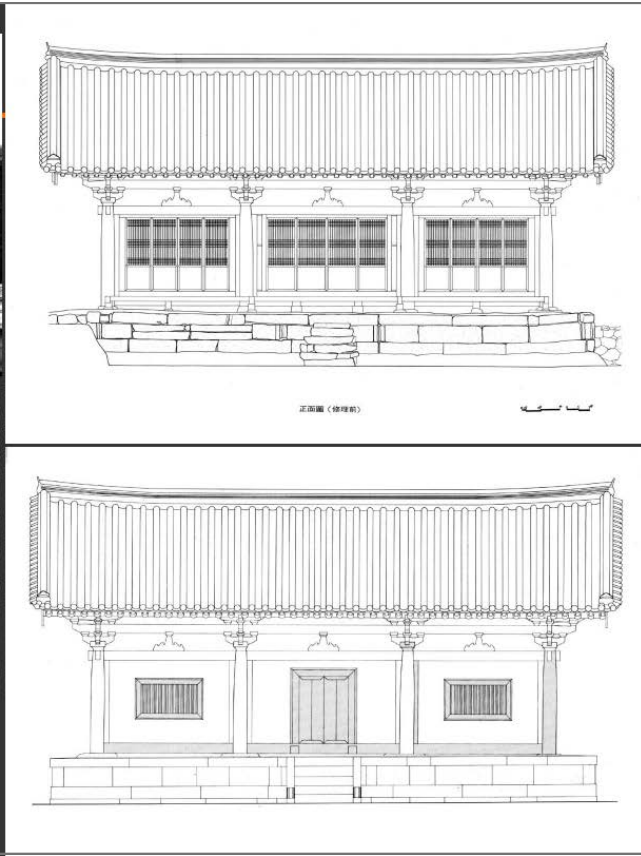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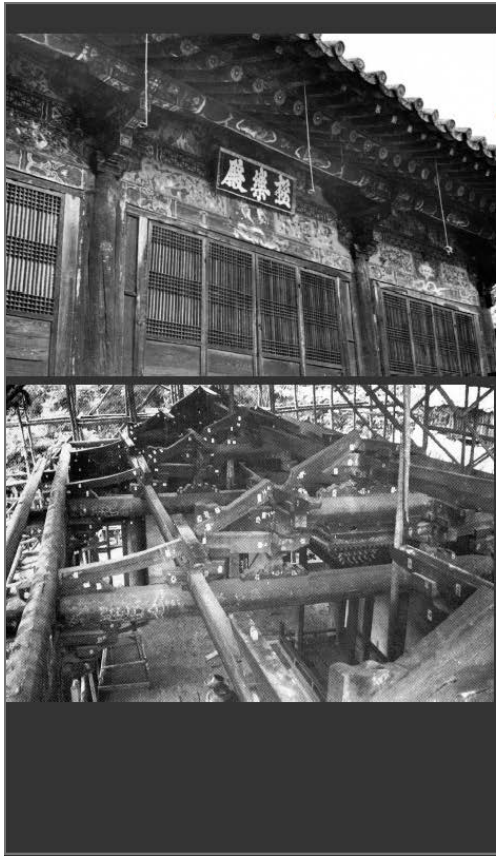
12 29

●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

- 공사기간 : 1972.7.10~1974.1.10
- 공사감독관 : 孟仁在, 金東賢(專門委員) 및 建築技士 3名 等
- 주요사항 : 고려시대의 건물 원형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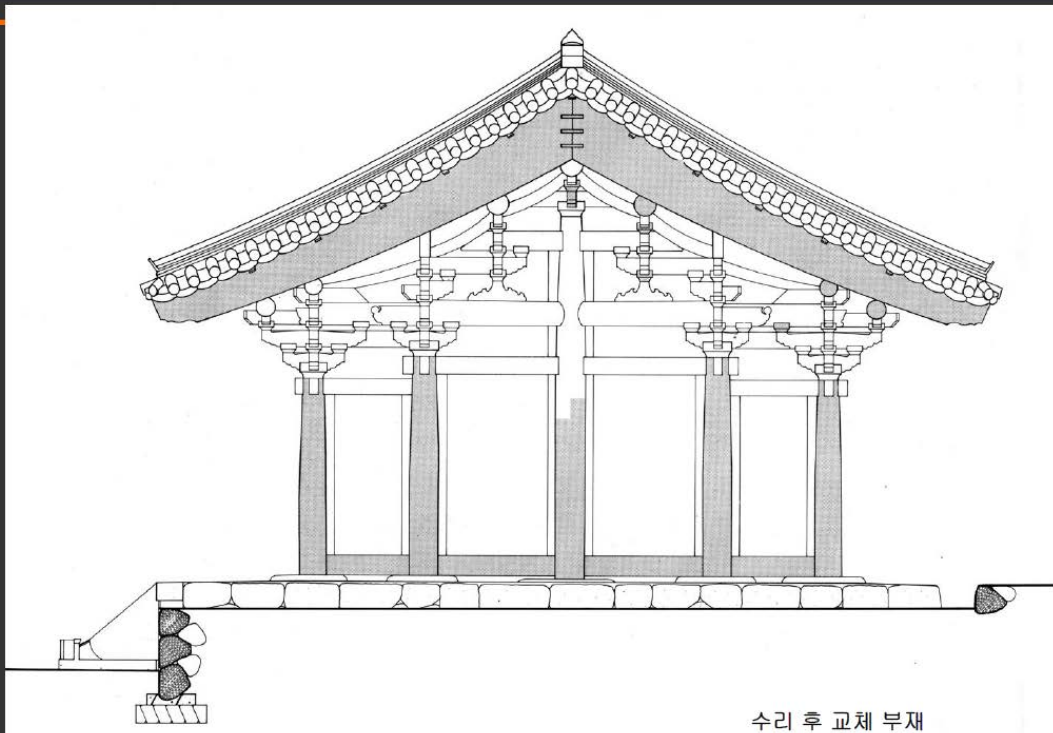


12



수리방법에 대한 재검토 : 봉정사 극락전

14 29



수리 후 교체 부재

당초양식 : 양식적 통일

1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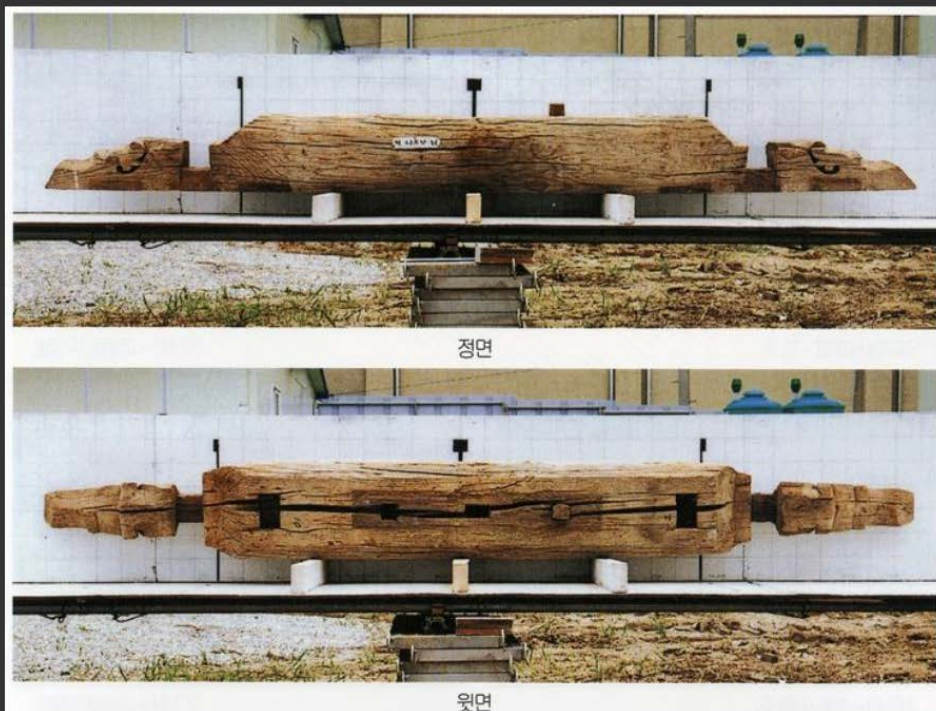
- 강릉 객사문 수리공사
 - 공사기간 : 2000.9. ~ 2004.12.
 - 주요사항
 - 완전 해체수리
 -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 판대공을 솟을합장과 포대공으로 변경
 - 통연으로 설치된 연목을 전량 교체하고 장연, 단연으로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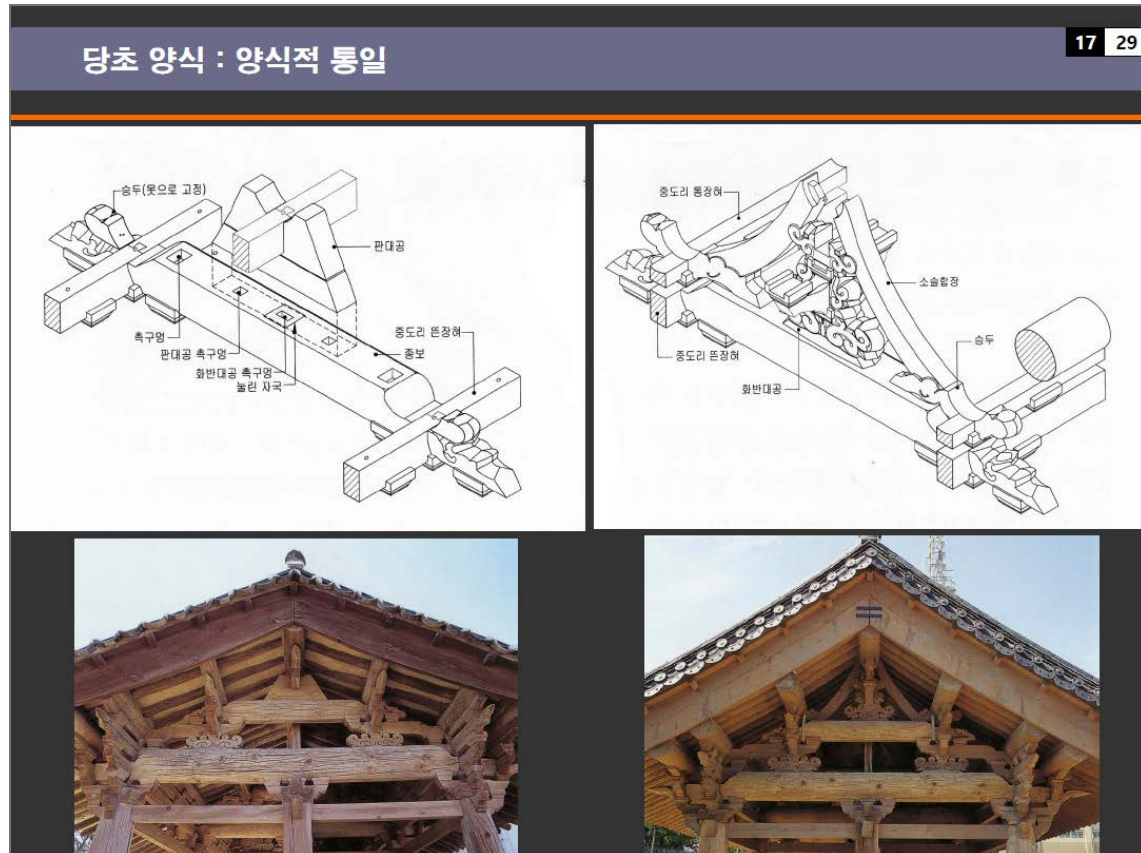
15

당초 양식 : 양식적 통일

16 29



16



원형유지 : 부식된 부재의 교체

19 29

● 의성 만취당(보물 제1825호) 수리공사

- 기간: 2013~2015
- 내용 : 해체보수(도리 이상) 공사에서 누하주 드잡이 및 마루 해체/설치, 활주 초석 드잡이, 기둥 드잡이 및 교체(9개소), 공포, 보, 도리, 장여 등 목부재에 대한 보강 및 교체, 창호 보수 등이 실시



보존원칙에 기반한 수리방법에 대한 재검토 과제

20 29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사례

- 지방 지정(강원도 유형 제17호)인 대적광전의 국가지정 신청
- 2018년 12월 20일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결과 부결



대적광전 정측면 전경(2016)



대적광전 내부 가구 전경(2016)

수리 방법에 대한 재검토

21 29

- 부결사유 : 수리로 인한 변형 등으로 지정가치 미흡

“근대 이후 시행된 수차례의 보수 공사로 기둥과 창방, 들보, 공포를 제외한 연목(부연과 개판 포함), 창호, 반자, 마루, 벽체, 수장재 등이 70~100% 교체되었다. 단청에도 중건시기에 걸맞는 특징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2009년에 외부 단청을 전면 개채했기 때문이며, 내부 단청도 문양과 색 등에서 20세기 이후 근대 단청의 기법을 보여준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잦은 수리공사로 건물의 원형과 옛 모습을 많이 훼손 및 상실한 좋은 사례이며, 이로 인해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의 저하를 가져왔다.”



3. 국제 보존원칙과의 비교

〈참고자료〉 베니스 헌장 (Venice Charter, 1964)

23 29

●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 “수복과정은 추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반드시 멈추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 불가피한 추가작업은 어떠한 것이든 원구성물(architectural composition)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 시대의 흔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양식의 통일은 수복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념물이 생긴 이후 모든 기간 동안 그 기념물에 부여된 정당한 부가물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 “건축물이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중복되어 이루어진 작업을 포함하는 경우 하부층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 즉 ① 제거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②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역사적, 고고학적 혹은 미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것이며, ③ 그 보존상태가 이러한 작업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양호한 경우에만 시행한다.”
- “모든 추측에 의한 복원 작업은 일단 배제되어야 한다. 오직 아나스틸로시스, 즉 존재하지만 흩어져 있는 기존 부재를 다시 조립하는 것만 허용된다. 조립할 때 사용된 재료는 항상 식별 가능하여야 하고, 재료의 사용은 기념물의 보존과 그 형태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존 원칙(1999)

24 29

조치(Intervention)

... 중략 ...

- 모든 예정된 조치는 다음의 사항을 따르도록 권고된다.
 - 전통적 방법을 따라야 하고,
 -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역적(reversible)이어야 하며,
 - 나중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보존 작업에서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그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 구조물에 포함된 증거물에 대한 향후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역사적 목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조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참고자료>

25 29

- 이코모스 헌장 : 건축 유산의 분석, 보존, 구조 수복 원칙(2003)
 - * <나라문서> 이후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존 원칙>(1999) 등을 거쳐 제정
- 1.3. 건축유산은 그 시대의 특정한 건설 기술을 이용한 고유한 산물로서, 그 가치는 비단 ‘외관’뿐 아니라 ‘모든 구성 요소의 완전성’에 달려 있다.
- 3.15. 노후화된 구조물은 교체(replaced) 되기보다 가능하다면 보수(repaired) 되어야 한다.
- 3.16. 구조물의 역사의 일부분이 된 결함과 개조는 안전 요건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 1.7. 건축유산은 달성할 수 있는 이득이나 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단, 당장 구조물이 붕괴될 상황(가령 지진으로 인한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4. 불가피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 3.17. 해체수리(Dismantling and Reassembly)는 재료와 구조물의 성격상 다른 수단에 의한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해로울 때 선택적인 수단으로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보존원칙과 관련된 한국 건축문화재 보존의 쟁점

26 29

- 국제적 보존원칙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논리는?
- ‘한국적 보존론’의 실체는?
 - 목조라는 재료의 특성에 기초한 교체 불가피론
 - 전통적인 수리방법의 계승으로서의 중수, 중건론
 - 전통기술 계승의 장으로서의 수리현장론
- 우리가 수리공사를 통해 보존한 것은 무엇인가?
 - : ‘예술적 가치(Artistic Value)’와 ‘역사적 가치(Historic Value)’
 - : ‘원형(原形, Original Form)’과 ‘원상(原狀, Original State, condition)’
 - ‘역사적 원상’(Historical Condition)

4.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붙임 2)
28 29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주요 내용(요약)

I 구성원칙

- (적용범위) 장소성을 지닌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지하, 지면, 바다를 포함하며 하나의 시설물·건축물에서 마을·도시까지 포함
 - ※ 자연유산, 무형유산 및 동산문화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장소와 관련된 동산 문화재와 무형의 유산은 그 범위에 포함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 근현대를 포괄)
- (구성형식) 서론을 제외한 5개 장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식은 본 조문과 더불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설조문으로 구성
 - ※ 호주의 「버라 헌장」, 중국의 「중국 문물고적 보호조약」의 사례를 참고

<< 문화유산 보존원칙의 구성 >>

서 문 : [서문부터 제1조 / 1개 조항]

▲ [제1장] 보존원칙 : 제2조부터 제7조 / 6개 조항

▲ [제2장] 가치의 이해와 적용 : 제8조부터 제11조 / 4개 조항

▲ [제3장] 보존과정 : 제12조부터 제17조 / 6개 조항

▲ [제4장] 보존조치 : 제18조부터 제27조 / 10개 조항

▲ [제5장] 관리와 활용 : 제28조부터 제30조 / 3개 조항

II 주요내용

- 서 문 : 서문부터 제1조
 - 원칙의 배경과 필요성, 원칙의 사용자, 적용범위와 사용방법을 기술(서문)
 - 중요성(Significance)과 원상, 보존조치, 보존대상물, 관리와 활용을 정의(제1조)
 - ※ '중요성'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미적, 사회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의 총합으로 '원상'은 그러한 중요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속성의 집합으로 정의
- [제1장] 보존원칙 : 제2조부터 제7조
 - 문화유산은 가치에 기반하여 보존하며 가치는 원상으로 구현되는 바 이를 유지하고 개입 시 건정성·원전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제2조~제5조)
 - ※ '원상'은 ▲ 위치, 배치 및 주변 환경, ▲ 형태와 디자인, ▲ 재료와 물질,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및 관리체계, ▲ 의미, 맥락, 정신 등 무형적 속성으로 구현 (6개 속성)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과정에서 유산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관리와 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기술(제2조·제3조)

○ [제2장] 가치의 이해와 적용 : 제8조부터 제11조

-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는 미적, 사회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해당 가치는 주기적인 재평가와 시술이 필요함을 기술
- ※ 현행의 예술적, 경관적 가치는 미적가치로 통합하고 기존에는 없던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연관, 전통적인 사용 등의 무형적 측면의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신설

○ [제3장] 보존과정 : 제12조부터 제17조

- ①조사 및 연구, ②중요성평가, ③계획수립, ④계획실행, ⑤모니터링 및 관리의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토록 규정
- ※ 특히 중요성 평가 단계는 문화유산이 지닌 추상적 가치들을 실제 구체적인 속성과 연계하고 이를 중요성 평가 기술문(SoS)에 작성하도록 명시, 이는 향후 보존조치 과정에서 활용

○ [제4장] 보존조치 : 제18조부터 제27조

- 유형적 차원(유지관리, 손상방지, 수리, 복원 및 정비)의 개입과 무형적 차원의 조치(사용의 유지, 관련 전통지식·기법·기술의 전승)의 선행, 조건과 고려사항을 기술

<< 문화유산 보존조치 세부구분 >>

A 보존 (Conservation)				
*유지관리 (Maintenance)	*손상방지 (Preventive work) *장기적 보수 *보존시설을 설치	*수리 (Repair) *보수(Reinforcement) *복구(Restoration)	*복원 (Reconstruction)	*정비 (New Work)
사용의 유지 (Retaining use)		관련 전통 지식, 기법 및 기술의 전승 (Passing on traditional knowledge, techniques and skills)		

○ [제5장] 관리와 활용 : 제28조부터 제30조

- 관리(보호체계 구축/정책과 계획 수립/자원 지원/조사·연구·개발/소통과 참여)와 활용(전시와 해설/교육과 체험/관광 자원화/산업화)시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규정
-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과정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원칙을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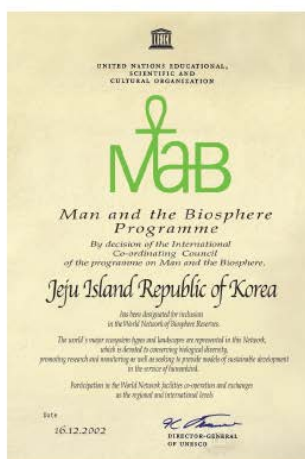
51

4.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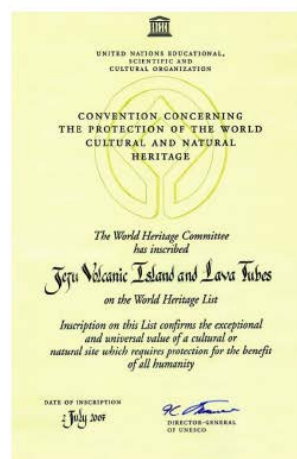
: 허진이(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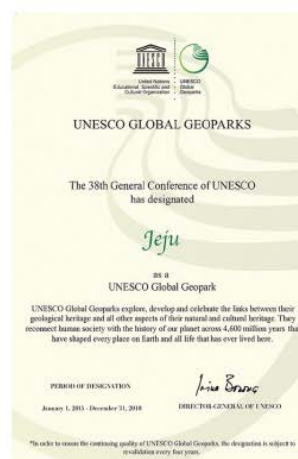
국제4대보호지역 제주



2002
생물권보전지역



2007
세계자연유산



2010
세계지질공원

+

람사르습지
(물장오리, 물영아리,
1100고지, 동백동산,
숨은물벙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해녀문화)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1 세계자연유산 등재 개요

- 명칭: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등재일: 2007년 7월 2일
 - 지정유산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성산일출봉응회구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 등재이유
 - 빼어난 경관적 가치(vii)
 - 독특한 지질학적 환경(viii)
- ※ 6년마다 재평가(2012. 7. 1 정기보고서 채택)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회의장



100만 서명 운동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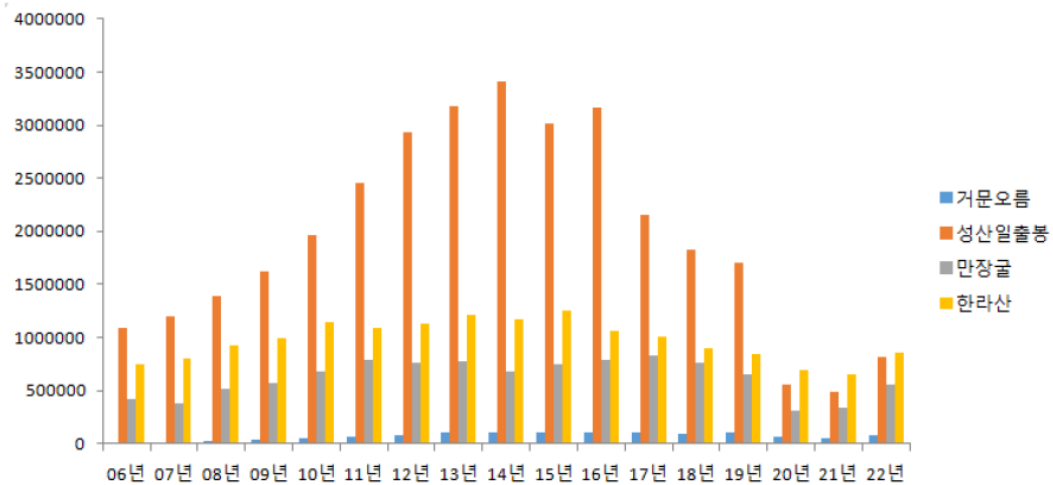
- 유산면적: 18,845ha * 제주도 면적의 약 10%*
- 핵심지역 9,475ha, 완충지역 9,370ha



2022년 탐방객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1,519,965	850,744	818,803	550,423	82,376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 유산지구 방문객 수 변화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 자연의 가치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첫 단추가 바로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기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 이수성 세계자연유산추진위원장(전 국무총리) —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세계자연유산이
하나도 없는 한을 이제서야 풀게됐다 “

— 이인규 세계자연유산추진위 부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2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

잠정목록 및 최우선 등재대상(2001 년 ~ 2002년)



OUV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2002년 ~ 2003년)

동굴학자 크리스토퍼 우드 "제주에는 좁은 면적에 다양한 화산지형들이 산재한 장점이 있음. 특히, 일출봉과 만장굴, 벵뒤굴 등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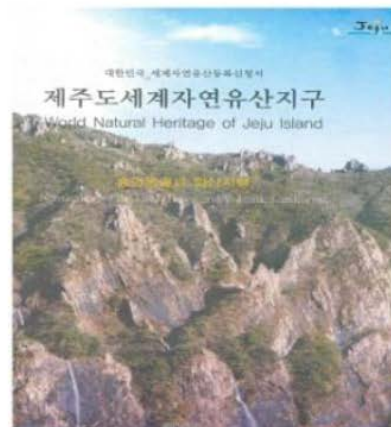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2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

등재신청서 초안 제출과 좌절(2004 년)

제주 자연유산 등재신청 보고회(2004. 12)
등재신청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중요한 제주도의 지질유산 이 누락되어 있음

문화재청 등재 추진 관계관 회의(2005.1)
관리계획이 미흡하고 신청서의 전체구성 및 논리성에 대한 재구성 요구, 외국과의 비교자료 및 관리계획 보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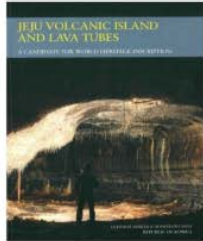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2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

등재신청서 재작성과 용천동굴의 발견(2005 년)



등재신청서 세계유산위원회 제출(2006. 1)
(도 → 문화재청 → 외교부 → 유네스코)



2005년 5월 11일 발견된 용천동굴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2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

IUCN 현지 실사(2006년)

실사 후 기자회견에서 폴딩월은

“ 제주가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 강력한 가능성이 있다. 화산지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빼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고 화산으로 시작해서 오름과 응회구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야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 7. 2)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3 대한민국이 함께 이룬 세계자연유산



<김대중 전 대통령 서명>

IUCN 자문관 폴딩월 "범국민 서명운동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일이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총 1,475,000명
도민 465,000
도외+외국인 1,010,000



전 국민이 열망했던 세계유산 등재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있기까지 '7년의 서사'

최현애리 기자 | © 일력 2023.07.19 | 댓글 0



도 유산본부, 오는 9월 두 번째 재평가 앞두고 13일부터 특별전
한라산 높이 '1950m' 처음 측정한 지리학자 등 선각자 활약상도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KBS 보도



SBS 보도



YTN 보도



MBN 보도

I.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개요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지닌 비길 데없는 가치와 기타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접근이 가능한 화산의 특징은 지구의 화산 활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등재 기준 (vii):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동굴계로 알려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이러한 현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각적으로 큰 인상을 남긴다. 이 용암동굴계는 천장과 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탄산염물과, 부분적으로 탄산염 광물이 덮인 어두운 색의 용암 벽면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경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바다 위로 솟아오른, 요새와도 같은 형상의 성산일출봉 용화구는 빼어난 장관을 연출한다. 또한 사제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는 한라산에는 폭포, 다양한 형태의 암석, 주상절리의 형태를 띤 절벽, 산 정상에 파구호가 정원을, 심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등재 기준 (viii): 제주도는 정적인 대륙 지각권의 열점 위에 형성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규모 순상 화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제주도의 특징적 경관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용암동굴로서,** 그 어떤 용암동굴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중부한 탄산염 2차 생성물(중유석과 기타 형성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성산일출봉은 특이한 구조적, 퇴적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수준 높은 화산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추후 화산 지역의 유산 등재를 위한 원칙>

IUCN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추가의 화산등재를 장려하는 것을

당사국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 철저한 전구 비교 분석에 의해 입증된 OUV의 주요하고 뚜렷한 특징을 식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 OUV를 주장하는 근거는 화산지형 내에 드러나는 좁고 특화된 많은 특징 중 하나가 아니라 입증 가능하고 널리 퍼져 있는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



전 세계 화산 지형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

Ⅱ.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1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고도에 따라 다양한 생물 서식하는 생태계보고(식물 2,100여종, 동물·곤충 3,700여종)
- 대규모 순상화산체 한라산과 소규모 화산체 오름의 독특한 공존
 - 백록담 분화구,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과 40여 개의 오름 다양한 화산지형이 특징
- 높이 1,950m, 사시사철 다양한 경관 자랑



※ 지정현황

- 1966년 천연기념물(제182호),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Ⅱ.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2 성산일출봉응회구

- CNN 선정 한국 비경 1위, 경관적 가치+ 수성화산 분출 과정 보여주는 세계적인 명소
- 약 5천년 전 수성화산으로 탄생, '수성화산 연구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특별한 퇴적특성 보여줌
- 높이 약 180m, 분화구 직경 약 600m로 응회구의 다양한 내부구조 볼 수 있음
- '해맞이 명소' 1월 1일이 되면 첫 해돋이 보기 위해 인산인해, 성산일출축제 개최



※지정현황

- 2000년 천연기념물(제420호),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II.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3 거문오름용암동굴계

-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가 흘러 형성된 용암동굴 무리**
 - *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용암동굴(다양한 탄산염 생성물 분포)
- 모체인 **거문오름**은 용암협곡, 수직동굴, 다양한 식생 등 **‘살아있는 화산 박물관’**
 - * **생태관광의 대표명소** : 매년 거문오름국제트레킹 개최(생태관광 20선, 생태관광 10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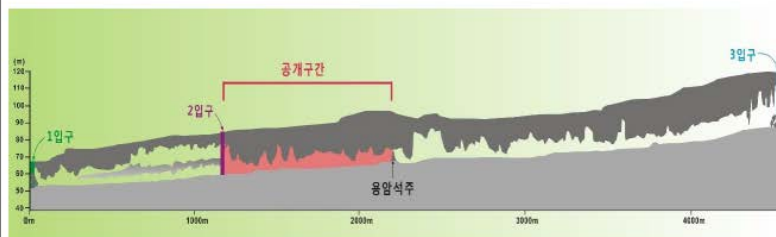
※지정현황

- 2005년 천연기념물(제444호),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II.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3 거문오름용암동굴계

- **벵뒤굴, 옷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로 구성
- 동굴마다 독특한 용암동굴의 특징이 있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데 결정적 역할
 - * 만장굴 : 총 길이 7.4km, 부분적으로 다층구조. 3개의 입구 중에서 일반인 출입 가능한 입구는 2입구 1km만 탐방 가능. 7.6m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용암석주 보유



< 만장굴 전체 단면 >



< 만장굴 복층 단면 >

Ⅱ.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3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부종휴 선생 (1926-1980)
*김녕초교사(1946-1947)



Ⅱ.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3 거문오름용암동굴계

- * 김녕굴 : 약 700m 길이로 만장굴과 함께 1962년 천연동굴 가운데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해안에서 날아온 탄산염 퇴적물이 쌓여 있으며 벽면에는 탄산염 동굴생성물이 형성.
- * 뽕뒤굴 : 소규모 지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미로형동굴. 거문오름 분출초기 용암 이동방향 보여줌
- * 당처물동굴 : 1994년 주민이 밭터 고르는 중 발견. 길이는 360m로 짧지만,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
종유관, 석순, 석주, 동굴산호, 동굴진주 등 발달



<김녕굴>



<뽕뒤굴>



<당처물동굴>

II.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3 거문오름용암동굴계

* 용천동굴 : 총 길이는 3.4km이며, 동굴 끝 800m의 용천호수 분포. 웅장한 용암동굴의 형태로 이차로 형성된 탄산염 동굴생성물(종유관, 종유석, 동굴산호 등)이 장관을 이룸. 토기, 동물뼈, 철기 등 역사적인 유물도 발견.



<용천호수와 눈먼물고기>



<용천동굴 내부>



<멧돼지뼈>



<토기>

III. 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

1 IUCN 권고 사항 이행

1)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입	- 기존 총 364필지 3,443,392m ² 중 331필지 3,027,242m ² 보상(묘지제외) - 2018년 경계 변경된 지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 추진 중 (84필지, 379,298m ²)
2) 지정구역 내 관광객과 상업활동 효율적 관리	- 거문오름, 한라산 탐방객 예약제 및 총량제 실시 - 일출봉 및 만장굴 상가매입 후 홍보관 설치, 입장료 인상
3)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완충지역 내 지하환경 훼손시키는 농업행위 방지	- 핵심지역 동굴지표 표시, 건물철거 - 핵심지역 매입토지 친환경 위탁관리



Ⅲ. 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

1 IUCN 권고 사항 이행

4) 제주도의 중요한 화산적 특징의 관리와 생물다양성 가치의 관리

- 정기 모니터링
- 학술연구(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성산일출봉 해저지질 조사 등)

5) 제주도 내 다른 용암동굴계나 화산적 특징 추가로 지정

-세계자연유산 경계 소폭 변경 (2018. 7월, 42회 세계유산위원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한라산탐방 예약시스템

한라산의 자연과 만날 수 있는 탐방로로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 탐방로 선택
• 날짜/인원 2023.07.14 1명

예약완료

예약하기 (예약조회)

한국일보

스키 타고 수영도... '선 넘는' 비양심탐방객에 몸살 앓는 한라산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 빈번
사진 촬영 위해 탐방로 벗어나고
백목담 분화구 무단출입도 적발
흡연에 야영, 취사행위도 여전

이미 알려졌다.
위법행위별로 보면 탐방로를 벗어나
는 출입금지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
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출입이 엄격하
지 않은 백목담 분화구까지 무단 진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50~60대로
구성된 관공객 9명은 영상코스를 이용

산불 위험 등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
지만 적발 건수는 30건에 이르며 등 여
전하다. 또 다른 탐방객들은 단속원을
괴해 입산 시간을 무시하고 탐방로를
벗어나 연트를 치고 야영까지 하는 사
태도 있다. 지난해에만 6건, 올해도 2건
이 적발됐다.

에는 오름 동호회 회원들이 폭우가 내
린 해발 1,323m의 한라산 사리오름 산
정호수에서 수영을 하다 전국적인 배
를 앓았다.

한국일보

탐방 예약하면 무료인데... '한라산 입장권'을 판다고?

하루 인원 제한한 예약제 악용
QR코드 복사해 넘기며 거래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를 이
용해 무효인 탐방 예약 QR코드를
'한라산 입장권'이란 명칭으로 판
다면서 판매하고 있어 대략 4만여
매가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 중도탐방객에 따르면 사
이트에는 '한라산 관공객 탐방로
1/23(1월 23일) 입장권 0매 양도
나타내는 글과 함께 4만 원에 판
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거래는
한라산 탐방 예약제에 관한 것인데
이 글은 판매 글과도 관련이 없다
는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규정한
는 다수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국립
공원은 1만~5만 원으로 다량이다.
한라산 탐방 입장권 판매 관련 게시
글만 2,000건 정도 검색됐다.

예약번호	예약금액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2023-01-23(일)	40,000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를 악용해 무
효인 탐방 예약 QR코드를 '한라산 입
장권'이란 명칭으로 판다면서 판매하고
있어 대략 4만여 매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이 일부 등산객
들의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라산국립공원 단속원이 단속을 강화하
고 있지만, 비탐방로 등반, 흡연, 야영, 취
사와 함께 심지어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실산에서 스키를 타는 등 탐방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
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74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22건의 절반을

해 등반하던 중 탐방로를 벗어나 한라
산 사면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어 재산
위험이 높은 능선을 따라 백목담 정상
까지 올라갔고, 이 중 일부는 출입금지
구역인 백목담 분화구 안까지 들어가 연
못 주변을 탐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국립공원 단속원은 이날 오전 8시40
분쯤 현장에 있던 9명의 등산객들을 적
발했다. 또 이들과 함께 새벽을 탐방한
3명은 단속원을 괴해 도주했다.
2013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가뭄사건 발생을 위해 선을 넘는 경우
도 다반사다. 특히 최근처럼 한라산 뒤편
세요를 인근 철도 자영지 군락에 자생하
는 철쭉이 만개할 때면 일부 등산객과
사진작가들이 지정탐방로를 벗어나 출
입금지 구역 내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사
건 촬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탐
방로 이외 불법 출입 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잠시의 만
족감을 찾아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
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21.812.02)

III. 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

2 한라산 탐방예약제

도입배경 및 시행

✓ 적정 탐방 보장

- 탐방객 수용방안 용역
- 수용력에 따른 적정탐방객 적용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

✓ 2021. 1. 4일 시행

예약제 효과

- ✓ 탐방객 분산
- ✓ 불법주차 감소
- ✓ 안전사고 발생 감소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예약부도자

- 패널티(1회 3개월, 2회 1년)
- 시간대별 예약제 도입

✓ QR코드 불법거래

- 적발시 패널티(예약 1년 금지)
- 예약실명제(예약 주1회제한)

✓ 사이트오류 : 클라우드구축

IV. 세계자연유산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마련

1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역할 :
가치 전달, 연구 및 모니터링, 홍보,
국제협력, 교육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IV. 세계자연유산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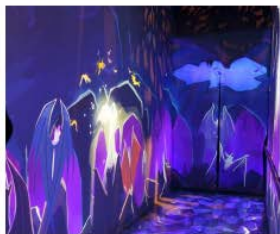
1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VR 체험존

360도영상관



실감콘텐츠, 인터랙티브 존

KBS NEWS

뉴스9 환경K 글로벌K 영상K 스포츠 K팝 D-Live #김철 수사관 특소 #라시어, 우크레

전시로 만나는 세계자연유산...미공개 용천동굴 특별전

일제 2023.11.09 (일) 17:00

주제 2023.11.09 (일) 17:00

고려사 조선시대 지리지

가장 큰 강을 만나다



IV. 세계자연유산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마련

2

홍보관, 안내시설 등



V.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인재양성)

1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
---	----------------



경향신문 2008.06.14(토) 14면 (4호)

인근 초등생 15명 참여 활동
어린이 눈높이로 쉽게 설명
탐방객들 "기특하네" 칭찬

“아름고 불변하지만 만질 때에는
조명시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열과
빛 때문에 원래 동물 환경에서는 자
랄 수 없는 식물, 균들이 자라게 되
고, 이것들이 동물을 훼손합니다.”

지난 18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만장굴 내 용암표식인 기복바위 앞에서 곡슬민 어린이 동굴해설사(김녕초 5년)가 마이크를 들고 설명하자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곡슬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만장굴에서 활

중에는 어린이 해설사가, 재주로는 지난 10월20일 만장급 주니어 하오인 김민초등학교와 김민초 동북분교 어린이 15명이 해설시조로 활동중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해설사가 될은 어휘력과 기교에 한·하·토요일에, 방학이 끝나면 유원이나 농·유원에 활동한다. 아이들은 알맞기 간 고집도 보인다.

여름 오찬에는 15명 중 6명이 어린이해설사가 동참했다. 만장급과 말구름은 11세에 이르면, 해설사와 동행하면 유원 1시간 30분에 소요된다.

2018년 08월 21일
14:42 (수요권/제주)

18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만장굴에서 활동 중인 어린이 해설사들이 거북바위 앞에서 탐방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illegible]

2018년 : 47명
2019년 : 54명
2020년 : 60명
2021년 : 60명
2022년 : 60명

mr.park@pyongyang.com
(202) 1716300

세계자연유산을 이끌어갈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V.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인재양성)

1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



자부심고취,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미래 비전을 위한 교육의 장 마련

V.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인재양성)

2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이해하기 교내교육

※ 유네스코학교란 :
학교 교육을 통해 평화와 문화 증진 위해
유네스코가 시작한 제도로 전 세계 10,000여개
국내 592개, 제주도내 18개 학교 가입



용암지형인 용암총류, 용암발가락, 용암석주를 직접 찾아보고 각 용암지
형이 만들어진 원리 이해



전시물관람 등 체험교육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의 인식 증진
나무명찰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제주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 인식 제고 및 제주자연보전 참여의식 고취(2,137명 참여)

V.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인재양성)

3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캐릭터 공모전



V.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인재양성)

4 한라산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한라산 체험 학교



찾아가는 국립공원

'한라산 구상나무가 들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 환경부 인증

A 고령수 기자 / © 입력 2018.11.26 10:52 / © 수정 2018.11.26 10:58 / 북경출판사



V.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인재양성)

5 중학교 교과서 수록 및 교육교재 개발



천재교육 : 과학1



지학사 : 국어3



천재교육 : 과학1



금성출판사 : 사회1



삼화출판사 : 사회1



대교 : 사회1



V.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인재양성)

6

ICT 활용 교육 : 찾아가는 VR 교육



가상현실(VR)+교육을 접목한 사례로 재탄생하는 세계자연유산 제주

VI.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마을상생)

‘세계유산협약 제27조’

세계유산협약의 당사국들은 모든 적절한 수단과 특히
교육 및 정보 계획에 의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존중심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자긍심 갖는 것 중요!!!

VI.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마을상생)

세계자연유산 마을이란 ?

- 제주 세계자연유산이 속한 7개 마을
선흘1리, 선흘2리, 덕천리, 성산리, 행원리, 월정리, 김녕리
- ☞ 유산마을 사업은 세계자연유산 보유에 대한 주민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주민 스스로 보존 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추진
- 유산마을 연계 사업 : 지역주민 해설사 양성, 세계유산지킴이, 세계자연유산 그림책마을,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등

세계유산협약 4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커뮤니티의 역할 강조!!!!

VI.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마을상생)

1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해설사 신규양성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22
343	26	45	130	29	-	-	25	-	-	-	58	30

※ 2년 마다 보수교육 실시

해설사 근무지별 배치현황(2022)

구 분	계	거문오름	유산센터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최종배치인원	115명	33명	7명	30명	25명	20명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주축

해설사 활동



해설사 교육



2010년 해설사 보수교육 2015년 해설사 보수교육



해설사 매뉴얼 책자

VI.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마을상생)

2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제민일보

2019년 04월 25일
10면 (2면 중)



“내 인생의 그림책 만들기”

도세계유산본부, 그림책마을 프로그램 실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혜)는 지난 8일 선홍2리에서 ‘그림책 작가 김중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그림책 만들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책마을 프로그램은 세계자연유산과 그림책을 매개로 마을 문화콘텐츠를 제작해 머물고 싶은 세계유산마을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5월에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5·6학년

15명이 참여해 ‘귀운덕 그림책 작가와 함께 하는 내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8월에는 국내외 그림책마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그림책과 관련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그림책마을 교류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나용혜 세계유산본부장은 “올해 선홍2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7개 세계자연유산마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종희 기자

(14.2~15.7cm)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문화활동 지원

VI.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마을상생)

2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뉴제주일보

2022년 06월 14일
10면 (문 화)

‘파랑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15일 성산초서 북콘서트 열려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출판사 남해의봄날과 제주도서관친구들이 오는 15일 오후 5시 제주 성산초등학교에서 ‘파랑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북콘서트를 연다.

이날 그림책으로 꾸준히 사회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온 권운덕 그림책 작가와 함께 책을 만든 성산초등학교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어린이 저자 33명이 참여해 출간 소감, 그림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수십 종의 마을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공유된다. 아울러 책과 선물이 증정



그림책 '파랑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정형신문 그림책

되며, 사인회, 간식나눔 등이 이뤄진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문의: 책(064-805-2016)과 남해의(064-0512)로 바랍니다.

고경호 기자 kkh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문화활동 지원

자연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33명의 제주 어린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문화활동 지원

세계자연유산마을 그림책 출간

VI.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마을상생)

3 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제주新보

▲주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5일과 26일 이틀간 김녕초등학교에서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사진)를 개최한다.

유산마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캠프는 세계자연유산을 주제로 제주어와 영어에 대한 체험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리토크 시간, 우리 마을 연극, 어린이들이 직접 팔아보고 구매해 보는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

2019년 05월 24일
06면 (교육/입시/IE)



사가 마련된다.

또 올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토착어의 해'로 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토착어 보존에 앞장서기 위해 '제주어 동요 부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제주어라는 토착어를 보존하고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2차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는 선을2리 마을에서 7월에 개최된다.

김정은 기자 kie0317@jejunews.com

(10.7*9.7)cm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방문객들을 위한 친절교육

VII.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노력

1 국제교류 : 6개지역과 자매결연 체결



지역	체결일
미국 하와이화산국립공원	2008. 07. 01
중국 태산	2009. 05. 15
뉴질랜드 통가리코 국립공원	2010. 05. 18
일본 시라카미산지	2010. 10. 28
호주 태즈매니아국립공원	2017. 06. 20
북아일랜드 자이언트코즈웨이	2017. 09. 11

Ⅶ.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노력

1 국제교류 : 6개지역과 자매결연 체결



아오모리현 제주홍보관



하와이 바이오블리츠 행사 참가



하와이 홈페이지 제주 기사



제주-뉴질랜드 공동 연구

Ⅶ.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노력

2 체험 프로그램



▶ 거문오름국제트레킹



▶ 한라산 체험 프로그램



▶ 성산일출축제

VII.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노력

2

체험 프로그램 : 세계유산축전



VII.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노력

2

체험 프로그램 : 세계유산축전



VII.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노력

3

하포



Triển lãm di sản thiên nhiên thế giới Đảo Jeju
Hàn Quốc



VII.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노력

3

포항



국제행사홍보



구글스트리트뷰



국제사진공모전



VII.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노력

3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첫 홍보 유산 '화산섬, 제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문화 콘텐츠... '웨어아워헤리티지 캠페인' 소개

현장 대응 실행공화국 취지

문화유산은 인류의 문명사적 유산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제정하여,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제정하여,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웨어아워헤리티지 캠페인'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는 '웨어아워헤리티지 캠페인'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는 '웨어아워헤리티지 캠페인'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 08. 12

10:00

▶ 유네스코 웨어아워헤리티지

세계자연유산 공식 SNS

-  jeju.go.kr/jejuwnh
-  [wnhjeju](https://www.facebook.com/wnhjeju)
-  [jeju_world_natural_heritage](https://www.instagram.com/jeju_world_natural_heritage)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검색
-  blog.naver.com/wnhjeju

IV.

교육 평가와 과제



IV. 교육 평가와 과제¹⁾

1. 교육 평가

강의가 끝난 후,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설문 양식

<p>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p>	
<p>안녕하십니까?</p> <p>2023년도 한국의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는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입니다.</p> <p>본 설문지는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의 실태 조사 및 만족도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문 내용을 잘 읽고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해당란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p> <p>본 설문지의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어 개인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로서 향후 서원 세계유산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p>본 설문조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2023년 10월</p> <p>연구자: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교육홍보팀 연락처: 교육홍보팀 박현진(010-9066-4044), hyunjin.biz@gmail.com</p>	
<p>*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하시고, 기술형 질문에는 응답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1. 선생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p>	

1. 현장 교육에 참가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재단 교육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본 설문조사는 서원세계유산센터(신종일 PM, 박현진 PM)에서 자체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임

2. 선생님이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권유
- ②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권유
- ③ 다른 지자체의 권유
- ④ 기타: _____

3. 이번 교육에 참여해서 얻고자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유산영향평가의 개념,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이해
- ②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의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 이해
- ③ 성리학의 발생과 발전 및 특징을 통해 본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이해
- ④ 세계자연유산 등재 개요 및 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활용프로그램 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이해
- ⑤ 기타: _____

4.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듣고서 도움을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유산영향평가의 개념,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이해
- ②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의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 이해
- ③ 성리학의 발생과 발전 및 특징을 통해 본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이해
- ④ 세계자연유산 등재 개요 및 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활용프로그램 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이해
- ⑤ 기타: _____

5. 현장 교육 실태 조사입니다.

	교육서비스 품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센터의 준비 및 운영이 좋았습니까?					
2	센터는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 장소를 제공하였습니까?					
3	교재의 구성 및 내용이 좋았습니까?					
4	강사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있습니까?					

	교육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6	운영자 워크숍이 다시 실행되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7	운영자 워크숍 참가를 다른 직원들에게 적극 권유하실 예정이십니까?					

6.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다음에 ‘한국의 서원’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다루기를 원하시는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8. ‘한국의 서원’ 관리자 전문 교육에 선호하시는 기간과 횟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당일, 연 1회
- ② 당일, 연 2회
- ③ 1박 2일, 연 1회

*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 설문 분석

2023년 한국의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가한 9개 서원 지자체 담당자 11명과 재단 사무국 담당자 5명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회수된 16부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서원 관리자의 특성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가한 9개 서원 관리자들의 연령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연령 분포	빈도	비율(%)
20대	3	18.7
30대	5	31.3
40대	3	18.7
50대	4	25.0
60대 이상	1	6.3
합계	16	100

[표 1] 서원 관리자 연령 분포

16명 관리자의 평균 나이는 41.8세이고, 중위 나이는 40세이다. 최고령은 60세이고 최저 나이는 27세로 최고령과 최소나이 간에는 33세(1세대 정도) 차이가 있다.

연령 분포를 보면, 30대가 5명(31.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가 4명(25.0%), 20대와 40대가 각각 3명(18.7%), 그리고 60대 이상이 1명(6.3%)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에서 서원을 관리하는 30대의 주무관과 행정관리자인 50대를 중심으로 현장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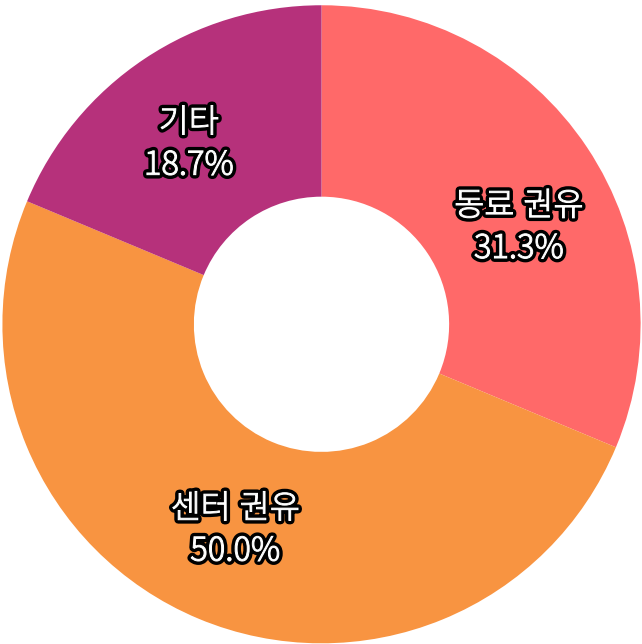
(2)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

가.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동기

2023년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서, 서원세계유산센터의 권유가 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료의 권유가 5명(31.3%), 그리고 기타가 3명(18.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내용은 서원 관리의 다양한 방안 탐구, 업무연찬, 워크숍 진행이었다.

참여 동기	빈도	비율(%)
동료의 권유	5	31.3
서원 세계유산센터 권유	8	50.0
다른 지자체 공무원 권유	-	-
기타	3	18.7
합계	16	100

[표 2]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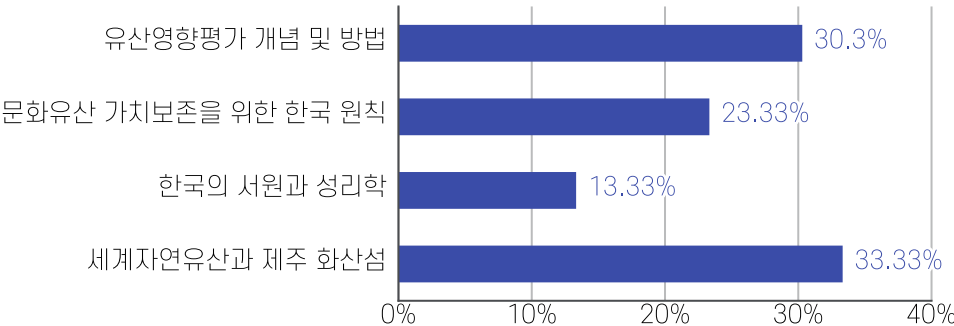
나. 교육 참가 기대 요인

2023년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요인으로, 유산영향평가의 개념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이해,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의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 이해, 성리학의 발생과 발전 및 특징을 통해 본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이해, 세계자연유산 등재 개요 및 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및 활용프로그램 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타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복수응답을 요청하였다.

5개 항목의 다중응답의 빈도분석 결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개요 및 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및 활용프로그램 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이해가 10명(3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산영향평가의 개념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9명(30.0%),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의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 이해가 7명(23.33%), 성리학의 발생과 발전 및 특징을 통해 본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이해 4명(13.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참가자 대부분은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자체의 담당자로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해 및 탐방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기대 요인	빈도	비율(%)
유산영향평가 개념 및 방법	9	30.3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7	23.33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	4	13.33
세계자연유산과 제주 화산섬	10	33.33
기타	-	-
합계	30	100

[표 3] 교육 기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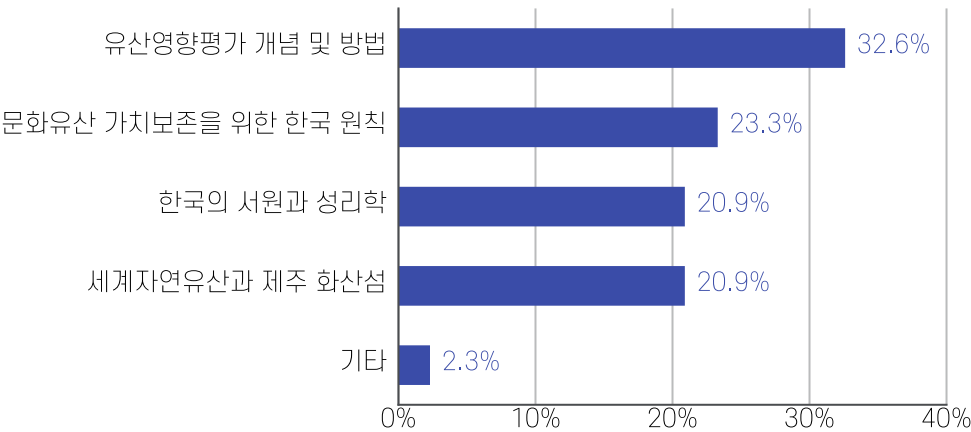


다.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성과

2023년 역량강화 워크숍의 기대사항에 대하여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은 내용(교육성과)에 대한 다중응답의 빈도분석 결과, 유산영향평가의 개념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14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의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 이해가 10명(23.3%), 성리학의 발생과 발전 및 특징을 통해 본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의 변천과정 이해와 세계자연유산 등재 개요 및 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탐방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및 활용프로그램 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이해가 각각 9명(20.9%), 그리고 기타(관리자 역량강화)가 1명(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기대(33.33% → 20.9%)가 컸던 것에 비하여 유산영향평가(30.0% → 32.6%)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의 교육성과(23.3% → 23.3%)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에 관한 교육은 기대치(13.33%)보다 성과(20.9%)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받은 내용	빈도	비율(%)
유산영향평가 개념 및 방법	14	32.6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10	23.3
한국의 서원과 성리학	9	20.9
세계자연유산과 제주 화산섬	9	20.9
기타	1	2.3
합계	43	100

[표 4] 도움을 받은 내용(교육성과)



라. 교육 서비스품질

워크숍을 추진한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교육 서비스품질에 대한 측정변수로 교육 준비 및 운영이 좋았습니까?,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장소를 제공하였습니까?, 교재의 구성 및 내용이 좋았습니까?, 강사의 관심과 성의가 있습니까? 등 4개 문항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센터 준비 및 운영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장소	교재 구성 및 내용	강사의 관심과 성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1 (6.3)	2 (12.5)	3 (18.8)	3 (18.8)
매우 그렇다	15 (93.8)	14 (87.5)	13 (81.3)	13 (81.3)

[표 5] 교육 서비스품질 빈도분석 결과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센터의 준비 및 운영에서는 좋았다가 1명(6.3%), 매우 좋았다가 15명(93.8%)이고,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 장소가 제공되었다에서는 그렇다가 2명(12.5%), 매우 그렇다가 14명(87.5%)이고, 교재의 구성 및 내용에서는 좋았다가 3명(18.3%), 매우 좋았다가 13명(81.3%)이고, 강사들의 교육 관심과 성의에서는 그렇다가 3명(18.8%), 매우 그렇다가 13명(81.3%)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서비스품질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와 Cronbach's alpha(α) 값을 이용한 신뢰도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교육 서비스품질의 Cronbach's alpha(α) 값은 .828로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교재의 구성 및 내용의 문항제거 시 Cronbach's alpha(α) 값은 .846으로 높아지므로 이 문항은 교육 서비스품질 4개 항목 중에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평균	표준편차	순위	Cronbach's α	문항제거시 Cronbach's α
센터 준비 및 운영	4.938	.2500	1	.828	.790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장소	4.875	.3416	2		.770
교재 구성 및 내용	4.813	.4031	3		.846
강사의 관심과 성의	4.813	.4031	3		.712

[표 6] 교육 서비스품질의 기술통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교육 서비스품질 4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4.859이고, 항목 평균의 최대값은 4.938(센터 준비 및 운영)이고, 최소값은 4.813(교재 구성 및 내용 등)이다.

교육 서비스품질 변수 평균값에서, 센터의 준비 및 운영(4.938)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 장소 제공(4.875), 그리고 교재 구성 및 내용과 강사들의 관심과 성의가 각각 4.81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마. 교육 만족도

워크숍을 실시한 후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에 대하여,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운영자 워크숍이 다시 실행되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운영자 워크숍 참가를 다른 직원들에게 적극 권유하실 예정이십니까? 등 3개 문항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만족에 있어서 만족했다가 2명(12.5%), 매우 만족했다가 14명(87.5%)이고, 워크숍에 다시 참가하겠다(재참가)에서 그렇다가 2명(12.5%), 매우 그렇다가 14명(87.5%)이고, 워크숍을 다른 직원에게 적극 권유하겠다(타인 추천)에서는 그렇다가 1명(6.3%), 매우 그렇다가 15명(93.7%)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	워크숍에 다시 참가	워크숍 참가를 다른 직원에 적극 권유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2 (12.5)	2 (12.5)	1 (6.3)
매우 그렇다	14 (87.5)	14 (87.5)	15 (93.7)

[표 7] 교육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교육만족도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와 Cronbach's alpha(α) 값을 이용한 신뢰도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교육만족도 변수 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α) 값이 .276으로 내적 일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이는 3개 문항들간에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만족 문항제거 시 Cronbach's alpha(α) 값은 .789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전반적인 만족 문항은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수로 나타나는 것은 항목 간 평균 분산이 음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들을 분석할 때에는 독립변수로 고려해야한다.

	평균	표준편차	순위	Cronbach's α	문항제거시 Cronbach's α
전반적인 만족	4.875	.3416	2	.276	.789
워크숍에 다시 참가	4.875	.3416	2		-.205
워크숍 참가를 다른 직원에 적극 권유	4.938	.2500	1		-.333

[표 8] 교육 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교육 만족도 3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4.896이고, 항목 평균의 최대값은 4.938(다른 직원 적극 권유)이고, 최소값은 4.875(전반적인 만족 등)이다.

교육 만족도 변수 평균값에서, 워크숍을 다른 직원에게 적극 권유가(4.938) 제일 높고,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만족과 워크숍에 다시 참가가 각각 4.8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 ‘한국의 서원’ 관리자 전문교육 기간과 횟수

1박 2일 동안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마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한국의 서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선호하는 기간과 일정에 관하여 당일로 연 1회, 당일로 연 2회, 1박 2일로 연 1회 등 3개 문항을 선택하여 설문하였다. 응답결과 1박 2일 연 1회가 15명(93.7%)으로 가장 많았고, 당일 연 2회가 1명(6.3%)으로 나타났다.

선호 기간과 횟수	빈도	비율(%)
당일, 연 1회	-	-
당일, 연 2회	1	6.3
1박 2일, 연 1회	15	93.7
합계	16	100

[표 9] 선호하는 관리자 교육 기간과 횟수

사.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선사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의 개선할 점을 질문한 결과 전체 참가자 16명 중 9명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연번	개선사항
1	기간이 짧은 것 같다
2	교육시기를 견학지의 세계유산 행사 등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
3	2박 3일간 더 여유롭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
4	객실 내부 협소, 편의시설 부족(TV 등), 주변 환경은 매우 우수
5	매우 알찬 구성이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6	교육지역 특성상 교육기간은 짧았다(제주도 외 다른 지역은 1박 2일이 적당)
7	소통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8	지자체 간 현황 공유 및 토론시간이 부족했다
9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표 10] 워크숍 프로그램 개선사항

한편, 앞으로의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원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참가자 16명 중 11명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연번	건의사항
1	유산영향평가 교육을 더 길게 진행하면 좋겠다
2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올해보다 더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3	서원 관리의 다양한 방법 소개
4	국내외 다른 세계유산과 해당 세계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5	법령 제도 관련 프로그램(ex. 현상변경, 영향검토, 세계유산법 등)
6	서원 담당자들의 발표를 통해 상호 정보 공유
7	서원 운영의 주체인 유림들의 애환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
8	세계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사례 소개
9	세계유산 관리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10	세계유산법, 유산영향평가의 구체적 사례 소개
11	타 세계유산 관리자들의 사례 발표를 통한 현안 공유 및 교류

[표 11] 향후 워크숍 프로그램 건의사항

2. 교육 과제

2023년 한국의 서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 함)에 참가한 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현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이 위치한 지자체 담당자와 서원 세계유산센터 근무자이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41.8세이고,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그리고 20대와 40대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30대와 50대가 많은 것은 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행정 관리자를 중심으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동기는 교육 주최자인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권유가 50%였고, 동료의 권유와 세계유산 담당자의 업무상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서원 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참가한 사람도 있었다.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기대했던 사항으로 교육장소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의 이해와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 탐방에 관한 관심이 많았으며, 유산관리에 점점 증가하는 유산영향평가와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의 제정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반면에 서원과 성리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워크숍 과정에서 진행된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내용으로는 유산영향평가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높게 나타났고,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증가되었다. 무엇보다도 서원과 성리학에 대한 기대는 낮았지만 강의를 통해 성리학과 서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성과를 보였다. 다만 세계자연유산과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높은 기대보다 교육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장해설사와의 소통과 집중도가 다소 부족함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서원 세계유산센터가 준비했던 워크숍에 대한 교육 서비스품질과 교육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교육 서비스품질 4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4.859로 아주 높게 나타나며, 이중 센터의 준비 및 운영은 93.8%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장소 또한 매우 만족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재 구성과 내용 및 강사의 관심과 성의는 낮았지만 이들의 평가도 80% 이상이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교육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4.896으로 교육 서비스품질(4.859)보다도 높게 평가되었다. 만족도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것이 4.938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인 만족과 다시 참가하겠다는 평가도 4.87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는 재방문보다 타인에게 추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워크숍에 있어서도 다른 직원에게 권유한다는 것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행정 조직상에 있어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재방문에 대한 평가가 높기 때문에 워크숍은 매년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워크숍의 일정과 횟수에 대한 응답으로 1박 2일 연 1회가 15명이 제시하였고, 당일 연 2회를 1명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제주도의 1박 2일 기간은 교육장소 특성상 짧은 일정이란 평가를 받았다.

기술통계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해 직접 기술을 요청한 결과, 응답자의 1/3이 교육 기간이 짧았음을 제시하였고, 참가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이 부족하였

다(2/9), 교육장소와 세계유산 행사와의 연계, 관리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숙박 장소 협소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장소를 고려하여 일정을 기획하여야 하며,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며, 특히 교육 참가자들 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워크숍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관하여, 유산영향평가가 제일 많았고(4/11), 세계유산활용(2/11), 법령제도(2/11), 서원담당자 간의 교류와 더불어 서원 유림과의 소통, 그리고 타 세계유산 관리자와의 교류도 희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유산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역 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유산영향평과와 함께 세계유산관리법 등의 법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양한 지역과 많이 세분화된 참가자의 연령, 근무처에서의 다양한 지위 등에 따라 다소 교육 장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부분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후 워크숍을 기획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교육 목적과 장소에 따른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 1박 2일이 짧게 인식되었듯이 만약 외국이 교육 장소라면 이에 적합한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육 장소와 숙박과 숙식의 편리함과 함께 참가자들과 조화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유산관리자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 설정과 교육자를 선정해야 한다. 넷째, 알찬 교육내용과 더불어 참가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타 세계유산기관과의 교류는 물론 서원 이해관계자(유림)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원 세계유산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담당자, 서원 관계자, 교육자들 의견을 취합하여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재단의 목표인 ‘한국의 서원’의 유산 보호와 가치 확산을 위한 방편이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0286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삼선동4가 336)

T. 02-929-5440~2

F. 02-3673-5444

W. k-seowon.or.kr